

굴껍데기 버렸다가 수천만원 ‘벌금폭탄’ 법원, 완도 어민들 선처

굴 껍질을 해안가에 버려 '벌금 폭탄'을 맞게 된 안타까운 사연의 양식 어민<광주일보 2013년 3월7일자 7면>들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벌금을 면해주는 등 온정을 베풀었다.

광주지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양형권)는 29일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모(61)씨 등 어민 16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 이모씨 등 12명에 대해서는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김모씨 등 4명에 대해서만 벌금 50~250만원씩 총 550만원을 선고했다.

원심에서는 이씨 등 16명에게 벌금 5만~250만원씩 총 2230만원이 선고됐었다.

광주지법, 항소심서

12명 벌금형 선고유예

4명에만 벌금 550만원

재판부는 “(벌금형을 선고한) 김씨 등 4명은 기소된 이후에도 굴 껍질을 처리하려는 노력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상당기간 공유수면에 굴 껍질을 방치하고 현재도 처리되지 않았으나 자치단체도 이 같은 문제에 별다른 관심을 두지 않은 상황에서 이씨 등이 굴 껍질 처리에 어려움을 겪었을 것

로 판단된다”고 감형 사유를 설명했다.

완도군 고금면 화성리에서 굴 양식을 주업으로 삼고 있는 이씨 등은 지난 2009년 11월부터 2012년 2월까지 굴을 수확한 뒤 껍질 1~15t씩을 해안가에 버린 혐의로 기소됐다. 현행법상 굴 껍질은 산업폐기물로 분류돼 일정 장소에서 파쇄한 뒤 처리해야 한다.

완도해경은 “굴 껍질이 바닷가에 쌓여 있어 미관을 해치고 다칠 위험이 있다”는 한 관광객의 신고로 주민들을 단속해 검찰에 송치했다. 완도군은 이번 사건 이후 올해 예산에 굴 껍질 처리 비용을 편성했다. /윤현석기자 chadol@/완도=정은조기자·서부취재본부장



비온 뒤 들깨 싹 고르기 한창

29일 오후 곡성군 옥과면의 한 들깨밭. 여름을 재촉하던 비가 그치자 한 아낙네가 들에 나와 싹 고르기 작업을 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생계형 성매매 여성 처벌 말아야”

국회 입법조사관 주장

생계를 위해 자발적으로 성(性)을 판매한 여성을 ‘성매매 피해자’로 간주해 범죄자로 처벌하지 말아야 한다고 국회 보고서가 지적했다.

국회 입법조사처 보건복지여성팀의 조주은 입법조사관은 29일 낸 보고서에서 작년 12월 서울북부지원이

자발적으로 성을 판매한 여성을 처벌하도록 한 성매매처벌법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것과 관련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조 조사관은 “성매매는 ‘성적(性的)자기결정권’로 접근하기보다는 사회·경제적 약자의 마지막 선택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해야 할 것”이라면서 “따라서 성판매자의 권리는 사회

적 약자 보호차원에서 논의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성 판매 여성의 처벌 문제를 ‘성적자기결정권’, 즉 성행위는 자유권적 기본권이라고 인정해 성매매를 합법화하는 차원이 아니라 성판매 여성의 인권유린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위헌법률심판제청사건의 본래 취지를 적극적으로 살려서 성판매 여성을 비범죄화하고 성구매자만 처벌하는 수요차단 정책을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수학여행비 ‘장난 아니네’

해의 간 광주과학교 276만원·전남과학교 237만원

진흥고 16만원·율촌초 3만5천원…학교별 큰 차이

광주·전남지역 초·중·고등학교 수학여행경비가 학교간 최대 200만원 이상 차이가 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2012년 전국 17개 시도 수학여행경비 현황’을 분석한 결과, 광주에서는 미국 서부로 수학여행을 다녀온 광주과학교가 276만6000원으로 가장 많이 들었다. 이어 동명고 82만원(중국), 호남삼육고 38만2000원(제주도), 광주예술고 36만1390원(제주도), 송원여고 35만4200원(제주도) 순이었다. 반면 제주도로 수학여행을 다녀 온 광주진흥고는 경비를 16만2120원만 사용해 가장 적게 들었다.

전남에서는 전남과학교가 237만560원(미국)으로 학생 부담이 가장 컸다. 광양제철고 70만9070원(중국), 전남외고 65만7000원(중국), 해제고 61만5000원(중국) 순으로 비쌌다. 가장 저렴하게 다녀온 곳은 여남고로 12만원(경기도)이 소액됐다.

중학교의 경우 광주지역은 살레시오중 25만8510원(제주도), 살레시오여중 24만7580원(제주도), 풍암중 24만1280원(제주도) 순으로 경비가 많

이 들었다. 광주중과 정광중은 각각 13만5750원, 13만7540원으로 저렴했다.

전남지역은 용정중이 157만7000원을 들여 중국으로의 경비로 수학여행을 다녀와, 가장 적게 사용한 남평중(9만700원, 경기도)보다 무려17배 이상 더 들었다.

초등학교는 광주의 경우 삼육초(30만원, 제주도)와 학운초(28만710원, 제주도)가 비쌌고, 전남은 중국으로 다녀온 봉래초(75만7580원)와 노동초(67만5000원)가 수위를 차지했다.

전국적으로 보면 고가의 수학여행 경비는 주로 사립학교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초·중등학교의 경우 상위 5곳 중 1~3위가 모두 사립학교였다. 고등학교는 상위 5곳 중 2위가 사립학교였다. 특히 수학여행 경비 상위 5곳에 포함된 초·중·고등학교 15곳 중 14곳(93%)이 유럽, 미국, 중국 등 해외로 수학여행을 다녀왔다.

중학교는 제주도가 33만8천342원으로 가장 높았고, 대구가 10만961원으로 가장 낮았다. 또 고등학교의 경우 대전이 39만1630원으로 가장 높았고, 전남이 25만9390원으로 가장 낮았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고려대·광주여대 등 32개 대

수능 최저학력기준 완화·폐지

을 대입부터 적용

고려대·성균관대·목포대·광주여대 등 32개 대학이 수시 전형에서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낮췄다. 예체능계 모집단위에서 수능 A/B형 반영 방법을 변경한 곳은 6개 대학이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학입학전원위원회는 고려대·목포대 등 32개 대학이 제출한 2014학년도 대입전형 실시계획 변경 신청을 최근 심의해 전형 변경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29일 발표했다.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완화 또는 폐지하려는 32개 대학은 기존에 제시한 전형요소는 바꾸지 않고 수능 최저학력기준만 완화하거나 폐지했다.

주로 수능 전에 전형을 하는 수시모집에서 학교생활기록부 등으로 합격대상을 가린 후 수능성적으로 최종 자격

요건을 갖춘 것을 요구하는 경우다.

기준을 변경한 대학은 건국대·건양대·경북대·경운대·경인고대·고려대·관동대·광운대·광주여대·군산대·나사렛대·대구한의대·대전대·동국대(서울)·목포대·부산교대·삼육대·서강대·서남대·서울과학기술대(서울)·성균관대·세종대·송실대·원광대·이화여대·인하대·중앙대(서울·안성)·차의과대·충남대·한국외대(글로벌·서울)·한밭대(대전)·한양대(서울) 등 32개다.

예체능계 수능 반영방법을 바꾼 대학은 강원대(춘천)·경희대(서울)·고려대(서울)·부산대(부산)·서울과학기술대(서울)·한양대(에리카) 등 6개 대학이다. 수능 A형 하나만 지정했다가 A/B형을 모두 허용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오늘 날씨

해돋이 05시 20분

해지기 19시 40분

달돋이 --시--분

달지기 10시 40분

기온 흐름세

가끔 구름 많으며 오전에 안개 끼는 곳 있겠다.

광주	구름많음	16/27℃
목포	구름많음	15/24℃
여수	구름많음	18/24℃
나주	구름많음	14/28℃
완도	구름많음	16/27℃
구례	구름많음	15/27℃
강진	구름많음	15/27℃
해남	구름많음	15/26℃
장흥	구름많음	15/28℃
순천	구름많음	15/28℃
영광	구름많음	14/25℃
진도	구름많음	14/25℃
전주	구름많음	15/27℃
군산	구름많음	14/23℃
남원	구름많음	14/28℃
옥산도	구름많음	13/21℃

식중독지수

지외선지수

뇌졸중지수

서해 남부 앞바다	서~북서	0.5m	경고	높음	보통
남해 서부 앞바다	서~북서	0.5m	경고	높음	보통

◇주간날씨

날짜	31(금)	6/1(토)	2(일)	3(월)	4(화)	6(수)
날씨						
최저/최고	16/26	18/23	17/27	17/28	17/28	18/28

“연명치료 중단 공감하나 법제화엔 이견”

정부 권고안, 의료·종교계 등 입장차 드러내

대통령 소속 국가생명윤리위원회 산하 특별위원회가 최근 마련한 ‘무의미한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권고안 초안’에 대해 의료계, 종교계, 환자들은 그 필요성에 대체로 공감했다.

하지만, 법제화 여부와 시행 방식에 대해서는 입장 차를 드러냈다. 특별위원회는 이 초안에서 ▲환자가 의사와 함께 작성한 연명의료계획서(POLST)에 따라 특수 연명치료 중단 여부 결정 ▲환자 일기장이나 가족의 증언에 따른 ‘추정 의사’ 인정 ▲가족 또는 후견인의 대리 동의 인정 등의 내용을 권고했다.

29일 연세대 의대 강당에서 열리는 공청회에 앞서 공개된 발제문을 보면, 의료계, 환자단체, 종교계 모두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취지에는 공감했다.

권고안 초안 마련에 참여한 하대석 서울대 교수는 “환자에게 임종이 임박했음을 미리 알리고 환자 스스로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하게 하는 것이 최선의 방안”이라고 말했다.

특별위원회는 이번 공청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최종 보고서에 반영해 7월로 예정된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본회의에 보고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경찰, 어린이집 등 복지시설 운영비리 특별단속

경찰청은 다음 달 1일부터 8월 말까지 어린이집, 노인·장애인 복지시설 등의 운영 비리를 특별 단속한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은 보육교사·원생을 허위등록해 국고보조금을 부정하게 타내는 행위, 식자재비·특별활동비를 부풀려

보고하고 업체로부터 차액을 돌려받아 횡령하는 행위, 불량 식품을 납품받아 경비를 절감하는 행위, 장애인 기초생활수급비나 노인요양보험료를 가로채는 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www.elysia.co.kr

“축복 받은 집”……

씨푸드 뷔페 **엘리시아**

새롭게 태어난 고급스러운 인테리어

새로운 감각으로 탄생한 스페셜 메뉴

행복하고 특별한 모임을 만들어드립니다!

예약문의

엘리시아 예약실
(상무지구 세정아울렛 3층)

062)385-3000

엘리시아 컨벤션 안내 (별관)

고급스러운 분위기연출과 차별화된 음식으로 초대되신 분들을 귀하게 모시겠습니다.

60석 80석 100석
120* 대형 빌프로젝트 및 음향시설 완비

결혼 피로연 / 각종 세미나 / 워크샵
돌잔치 / 회갑 / 칠순연

이용요금 ₩27,000~₩33,000

전국꽃배달서비스 365일 24시간
www.flowerelysia.co.kr

애경사화현 / 축하화환 / 꽃바구니 / 꽃다발
인터넷주문,카드결제,계좌이체 가능
☎ 062)513-4000

엘리시아 꽃배달 OPEN기념 이벤트!

꽃, 화분 등 5회 이상 주문시 [5만원 이상]
엘리시아 상품권 5만원권 증정

꽃 + 엘리시아 식사권 묶음 상품
30% 할인판매 “엘리시아 꽃배달” 홈페이지에서 구입가능

나고야
제철음식 일식전문점
엘리시아 협력업체

예약전화(초밥 포장 및 배달가능)
☎ 385-9696
상무병원 응급실 건너편 / 주차장 완비

정식특선

참조기타 12,000원
생우럭탕 12,000원
대구탕 15,000원
생선초밥 12,000원
특초밥 15,000원
생선구이 15,000원
굴비정식 20,000원
나고야정식 25,000원

정식코스요리

A코스 40,000원
B코스 50,000원
C코스 60,000원
(1인기준 2인이상)

주말 가족특선

4인 한상차림 100,000원
(토요일,공휴일에 한함)

Complete View
새롭게 태어난 엘리시아만의
고급스러운 인테리어

구분	평일	주말, 공휴일		
	런치	디너	런치	디너
성인	23,000	27,000	30,000	33,000
초등학생	12,000	14,000	15,000	17,000
유아 (48개월이상)	7,000	9,000	10,000	12,000

위 금액은 VAT 포함가격입니다.
홈페이지(www.elysia.co.kr)에 회원가입을 하시면
환상 10%할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각종 할인 이벤트 진행중 (홈페이지 참조)